



1. 학교

말뫼 아트 아카데미(이하 KHM)은 룬드 대학 부속의 미대입니다. 부속 예술 대학으로 영화 학교와 음대, 미대가 말뫼에 있고 나머지 캠퍼스는 옆 도시 룬드에 있습니다. KHM은 실질적으로는 룬드 대학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. 이에 관해 교환학생이 느낄 만 한 것이라면, 룬드 대학 도서관의 책을 KHM 도서관으로 주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KHM의 과는 예종과 거의 비슷하게 Fine Arts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, 매체 수업들에 학생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학부는 3년제로 각 학년 당 15명 내외, 대학원(2년)도 마찬가지이고, CPS (Critical and Pedagogical)라고 우리 학교 미술이론과와 유사한 과정이 또 15명 내외로 있어서 전교생은 총 7-80명 내외로 작은 학교입니다.

제가 교환을 간 뒤 학교가 새 건물로 이사를 해서, 학교 시설이나 공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상세히 적지 않기로 밝혀둡니다. 학교 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특히, 이후에 수학한 학생의 후기를 참고해주세요.

* 개인 스튜디오 공간은 유럽 내 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—이후 여행을 가게 되어 새로 이사한 학교를 둘러봤는데, 개인 스튜디오 공간이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

2. 수업

close up(Emily Wardill) : 우리 학교 독립연구와 비슷합니다. 매 학기 수업 컨셉이 달라지긴 하지만, 그룹 리딩과 토론, 개인 발표, 영화 스크리닝, 외부 작가 세미나, 개인 면담을 번갈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기말 발표가 있습니다.

공방annex 수업: 저는 철공 수업을 들었고 학교에서 2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다 같이 재료를 사러 갑니다. 철공 수업에서 개인 작업에 관한 여러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으며, 산소, 아르곤 등 여러 기계를 구분하여 적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power trip: 우리 학교의 몸워크숍과 퍼포먼스 수업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. 사물을 이용한 스트레칭, 부토 댄스,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이 눈을 가리고 도시를 산책하기 등과, 개인 작업 내외를 관통하는 이론적이거나 미학적인 개인 면담을 병행합니다.

power trip 2 : 당시 수업 주제는 ‘먹기’와 ‘이야기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. 한학기 수업 대신 저녁을 학교에서 같이 먹으며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강의식 수업을 대체했습니다. 화식에 관한 역사와 저녁 식사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남에 여러 유희적인 변주를 두었습니다.

3. 생활

비자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스웨덴에 도착하면 인터넷으로 이민청 방문을 예약하고, 방문해서 지문, 사진을 찍고, 일주일 가량 뒤 우편으로 거주허가증 카드가 옵니다. 생활비는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다르므로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50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... 월세는 서울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, 환경은 더 좋습니다. 저는 졸업생을 통해 운 좋게 집을 구했지만, 집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Lägenheter i Malmö 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 신청을 하면 말뚝에 실시간으로 집을 서블릿 하는 것을 둘러볼 수 있고, 연락 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.